



올 가을 스포츠 스타들 광주로 몰려온다

■ 광주 전국체전의 해

(1) 총괄

2007년 광주전국체전 개막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 8~14일까지 일주일간 광주시와 전남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993년 제 74회 대회 개최이후 14년만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회여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전국체전 준비상황을 5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실는다.

16개 시·도 3만여명 참가...10월8일 광파르

이번 체전은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에서 선수 2만5천여명, 임원 5천여명 등 총 3만여명이 참가해 한민족 최고의 축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번 체전에서는 육상 수영 등 모두 41개 종목이 광주와 전남 일원 66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중 광주에서 59개 종목이 벌어지고 전남에서 7개종목이 열린다.

광주 전국체육대회는 또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 대부분이 자기 고장의 명예를 위해 출전, 올림픽 리허설 성격을 갖는 동시에 올림픽의 열기를 접화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열렸던 도하 아시안게임 수형 자유형 200

m, 400m 1,500m에서 아시아 자유형 최강자로 우뚝 선 '마린보이' 박태환, 육상 세단뛰기의 김덕현, 유도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아시안게임 2개대회 2관왕을 차지한 승마 최준상등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도 참가, 대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체전에서는 검소한 실속있는 '일뜰체전'을 목표로 경기장은 인라인롤러장, 정구장, 하키장, 다목적체육관 등 4개소만 짓고 대부분 기존 경기장을 보수해서 사용한다.

새로 건설중인 4곳의 경기장은 9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광주체전을 통해 이 지역의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지역 체육발전은 물론 시민 여가향상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내외 해외동포들까지 광주를 방문, 발전된 광주의 위상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대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선수단 및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체전', 완벽한 체전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1등 광주체전', 문화예술을 꽃피우며 다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체전', 민주 성지에서 한민족이 하나 되는 '민주화합체전'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체전을 위해 대회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하 3개 위원회(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 범시민후원회)를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시민참여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범시민 자원단'은 140만 시민이 주인공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체전으로 치루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까지 광주시민의 10분의 1인 15만여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88광주 전국체전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특색있고, 차별화된 개·폐회식 연출을 통해 광주를 첨단산업도시이자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등 타·시도의 전국체전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오는 10월 8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개·폐회식은 광주시와 시 교육청 주관으로 총30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비된다. 문화수도라 빛의 도시, 여기에 첨단산업도시의 주제를 부각시킬 개·폐회식은 광주시의 비전과 전력을 주제로 특수효과와 첨단 기법을 사용해 독창적인 연출로 구성할 계획이다.

경기장 4곳만 신설...검소한 체전으로

이같은 행사를 위해 지난해 7월~8월 16일까지 개·폐회식 연출 아이디어 전국민 공모에서 당선된 13건을 중심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작업에 돌입한다.

체전기획단 관계자는 "광주 체전은 140만 시민이 함께 하는 체전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의 준비를 통해 전국에 문화수도 광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체전기간 중 디자인비엔날레, 광주감지축제, 임방울 국악축제등 각종 문화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돼 전국체육대회 사상 가장 화려한 한민족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